

# 구제역 그 후

심장선 본회 이사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시설물이 동파되고 축사가 붕괴되는 악조건 속에 느닷없이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에 굶이 갈라진 동물은 모두 살 처분 되었고 구제역 발생농가에 진료하였던 수의사가 다녀간 곳도 역학조사하여 구제역 확산 예방차원에서 살 처분하였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우사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만났는데도 살처분 되었고 소 진료를 한곳 모두가 살 처분되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한 것이다. 눈만 뜨면 보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식같이 돌보던 소가 살 처분 된 것이다. 소가 아프면 주인도 아프고 질병에 걸려 괴로워하면 주인 또한, 마음 아파한다. 이유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돌보기 때문일 것이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들은 자식을 키우듯이 돌본다. 그래서 그 송아지는 주인을 알아보고 따른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우유를 내준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동거 동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를 하루아침에 살처분 하여 바로 목장 옆에다 매몰하였다.

멀리도 아닌 바로 옆에 매몰된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며 가슴 아파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졌으니 살림 또한 막막하기만 하다. 삶의 터전마저 잃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다. 어느 주부는 살 처분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 밤마다 잠도 못 이루고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였다. 당연한 일이다. 어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경계지역이라 하여 그 반경 안에 있는 축산 농가는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인근 상가와 주변 사람들 또한 불편함을 함께 해야만 했고 포천지역에 축산 농가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불안의 대상이 되었다. 아예 만나기를 기피한다. 또한 소장님마저 오지 않아 송아지는 넘쳐나고 폐소 또한 도축장까지 문을 닫아 출하를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아예 이동제한에 걸려 못하게 하였다. 축분 마저도 제거하지 못하여 엉망이었다.

공무원은 군과 합동하여 각 지역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밤을 지세 우며 방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의 연속인 것이다. 날씨가 야속하게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시에 방역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농가에게 전화를 걸어 구제역 증상이 있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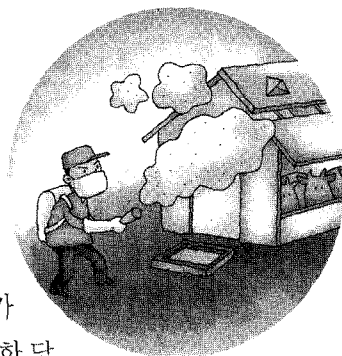


하였다. 모두가 긴장되고 더 이상의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농가는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겨울에 소독을 실시하였다. 금방 얼어 버렸다.

소도 추웠고 우리네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다. 3월 23일에 정부는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하였다. 이제 농가는 한 달

이 지나면 소를 입식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발생농가의 접경지역 농가는 60일이 지나야 된다. 60일 입식 시험 하에 구제역이 이상 없을 경우에 재개할 수 있다. 살 처분 당시 모든 것을 100% 다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살 처분에 동의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살처분 당시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살 처분 농가도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으나 보상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살 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고시가 2월 23일에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살처분 보상 가격은 전부다 농협중앙회의 경락가격에 비례하여 보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대는 6개월까지 수입 분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입식까지 한 달 그러면 4개월이 지나는 것이다. 2개월 동안 소를 입식하여 살 처분 당시의 원래대로 갈 수 있을까? 소를 입식하더라도 성공률은 희박하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농가가 바라는 원유수입금을 24개월까지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가 아니고 당연한 사실 아닌가? 그리고 소 값 보상대책위원회의 지자체위원회에서도 당사자인 농가는 제외 시켰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 당사자를 제외시키고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까? 정부는 보상에 있어 농가가 두 번 다시 울지 않게 산지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보상 받는 가격으로 소를 입식 할 수 있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농가에게서 전하고 싶다 어디든 구제역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만약에 내가 살 처분을 당하였다면 하는 생각에서 살 처분 당한 농가에 소 입식시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소를 파실 분은 포천에 있는 서울우유 포천축산계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농가와 연계하여 입식을 도와주려고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입식 시기는 4월 2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살처분 농가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낙농가는 모두가 함께 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